

# 전북, 도내 배수개선사업 추진 원할

### 농어촌공, 상습 침수 농경지, 배수장·배수로 등 설치·정비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이정문)는 올해 사업비 779억여 원을 확보해 32개지구(계속 30, 준공 2), 5,101ha에 배수개선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다.

배수개선사업은 집중호우 시에 상습적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농경지에 배수장, 배수로, 배수문 등을 설치·정비해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역 국비로 추진된다.



백학 2호 배수장 시공 후 유수지 전경.

수처리가 가능토록 배수장 15개소과 배수로 226조에 약 210km를 신설·확장하고 배수문 71개소를 설치한다.

올해 준공지구는 김제 용신지구와 완주 삼례지구로 오는 12월경에 사업이 완료된다.

또한 지난 2월에는 도내 34개지구(신규착수 13개, 기본조사 21개)가 신규 배수개선사업지구로 선정되었다. 이는 전국최다, 역대 최고사업량이며, 작년 집중호우로 인한 농경지의 침수면적·원인, 재배작물 등 현황조사, 사업 타당성을 개발해 농식품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달성한 성과이다.

신규 착수 지구는 군산 월연 등 13개지구(1,237억, 1,322ha)가 선정되어 12월까지 세부설계를 완료하고, 2025년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 할 예정이다.

기본조사 대상지구로 선정된 부안 백석 등 21개 지구(2,021억, 2,770ha)는 사업 타당성 조사, 주민의견수렴 등 기본조사를 12월까지 완료해 내년도 신규지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이정문 본부장은 "정부의 농업의 다양화 정책에 맞춰 논농, 원예작물 등의 농작물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배수개선사업의 확대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상공회의소는 4일 대회의실에서 도내 기업 안전보건관리 담당 임직원 60여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도내 중소기업 적정 대응능력 강화

### 전주상의,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개최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김정태 이차인(전주상의)은 4일 전주상의 7층 대회의실에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공동으로 도내 기업 안전보건관리 담당 임직원 60여 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안전보건 문화 확산과 정착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위험성 평가 실시방법과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방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차인 금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미만)에도 확대 적용되면서 사업주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지역 내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법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전주상의의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중소기업이 적절한 대응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중대재해 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송호석 전북환경청장은 4일 LS엠트론(주) 전주공장에서 녹색기업협의회 회의에서 지역환경 개선을 위한 협력사업 발굴 등에 대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 경영 개선으로 농업소득 올린 우수농가 방문

### 농진청 김항용 기술협력국장, 현장 의견 듣고·지원 확대 방안 등 논의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 김항용 기술협력국장은 지난 3일 전남 장흥군과 강진군에 있는 우수농업경영체를 방문해 농업경영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농업 소득향상 지원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남 장흥군 참다래 농장 위혁수 대표는 "개농 이후 몇 년간 경영과정을 기록하며 불필요한 지출 비용을 줄이는 등 경영 효율화를 꾀했다"라며 농촌진흥청이 앞장서 다양한 경영 개선 사업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농촌진흥청 김항용 기술협력국장은 지난 3일 전남 장흥군과 강진군에 있는 우수농업경영체를 방문해 농업경영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농업 소득향상 지원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전남 강진군 표고버섯 식품생산업체 운영진 대표는 "창년 농업인이란 장점을 살려 생산부터 관측 전 과정을 디지털화해 농업소득이 향상됐다"라며 "앞으로는 환경변화에 발맞춰 생생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경영관리 해결책이 필요하다"라고

고 전했다.

김항용 기술협력국장은 "잡은 자연재해, 경영비 상승 등 현장의 어려움에 공감한다"라며 "신제품 제품이 안정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시기술 집목된 경영 개선 프로그램 개발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송호석 전북환경청장, 녹색기업 지역환경 개선 협력사업 추진

송호석 전북지방환경청장은 4일 LS엠트론(주) 전주공장에서 개최한 녹색기업협의회 대표 회의에서 지역환경 개선을 위한 협력사업 발굴과 녹색경영체제 확산 방안 등에 대해 기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하였다.

송 청장은 "영세사업장, 취약 지역·계층에 대한 환경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수요자 중심의 환경행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민·관이 협력해 지역환경을 개선하고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전북농협, 칠보농협과 함께 영농폐기물 수거캠페인 실시

전북농협(본부장 김영일)은 정읍시지부(지부장 이재연), 칠보농협(조합장 권순준)과 함께 4일 정읍시 산내면 일원에서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전북농협 임직원들을 비롯한 한국환경공단 전북환경본부(본부장 송병선), (사)농가주부모임 희망드림봉사단 및 산내면 부녀회 등 30여명이 참가했다.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한국환경공단 정읍수거사업소로 보내져 재활용 될



전북농협은 정읍시지부, 칠보농협과 함께 4일 정읍시 산내면 일원에서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캠페인을 실시했다.

예정이다.

김영일 본부장은 "전북농협은 한국환경공단 전북환경본부와 협업하여 농업인들에게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방법을 공유하고 희망농업·행복농촌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전북농협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공간 조성과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 매년 영농폐기물 수거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 경진원, 해외 온라인 플랫폼 아마존 입점 참여기업 모집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원장 윤여봉 이하 경진원)은 4일부터 도내 중소기업 대상으로 해외 온라인 플랫폼(아마존) 입점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도내 제조시설 보유기업이거나 자체브랜드 보유한 중소기업으로 아마존 진출 판매중인 기업과 해외 온라인 플랫폼(아마존) 진출 희망기업으로 구분하여 선정예정이다.

참여기업은 아마존 온라인 플랫폼 입점교육 △계정 및 제품등록 △전문 컨설팅 △콘텐츠 제작 △아마존 광고 마케팅 중 선택지원되며, 글로벌 이슈와 트렌드에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도내 기업 경쟁력 확보와 해외 진출 희망기업에게 온라인 플랫폼 기회 제공을 통한 판로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

모집기간은 4~24일이며, 접수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수출통합지원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